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혁신금융 • 포용금융 • 신뢰금융
	보도	2019.12.23.(월) 08:00	배포	2019.12.23.(월)	
책임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주형(02-2100-2830)	담당자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이영민 사무관 (02-2100-2833) 이용준 사무관 (02-2100-2835)		

제 목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2019.12.23.(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19.12.23.(월) 08:00 ~ 09:3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 2020년 금융정책 방향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 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금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지난 세 달 동안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금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話頭)로 삼고자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며,
- ①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으로, ②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③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① 먼저, 新예대출(‘20.1월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②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며,
- ③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어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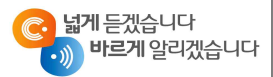
- '20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적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 특히, 오늘 회의는 금융위가 2020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 우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별첨> 2020년 금융정책방향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각 1부)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 위촉직 위원 (4개 분과 41명)

분과	성명	현직	성명	현직
정책· 글로벌금융 분과 (11명)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송시강	홍익대 법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대 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김진규	DH저축은행 고문	황현선	연합자산관리 감사
	전병준	SK이노베이션 고문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영아	SPC 부사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산업· 혁신분과 (11명)	김병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 교수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	정준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 교수	구경모	한화종합화학 전무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금융소비자· 서민금융 분과 (10명)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장우	부산대 경영대 교수
	조용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윤기설	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박창완	정릉신탁 이사장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부장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정소민	한양대 법대 교수
자본시장 분과 (9명)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철편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김용재	고려대 법대 교수
	박승구	메릴린치증권 한국대표	구경철	스틱인베스트먼트 파트너
	최만연	블랙록 한국대표		

※ 당연직 위원(13명)

- (금융위원회: 7명)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구조개선정책관
- (기획재정부: 2명)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 (산업통상자원부: 1명) 산업정책관
- (기타: 3명)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이사